



올해 순창 강천산 단풍을 찾는 관광객은 관광전용 힐링 도로보길로 보다 편안한 강천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강천산 관광전용 도로보길 조성

순창군, 16억원 투자... 음용온천수 채수장 ~ 제3주차장까지 강천호 구간

올해 순창 강천산 단풍을 찾는 관광객은 관광전용 힐링 도로보길로 보다 편안한 강천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군은 올해 5월 착공한 강천산 관광전용 힐링 도로보길이 공정을 52%를 넘어지면서 10월이면 단풍을 찾는 관광객이 직접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사업은 강천산 음용온천수 채수장에서 제3주차장까지 강천호 옆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792호선 1.1km 구간을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 전망대, 쉼터 등을 갖춘 관광객 전용 도로보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천산은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여름, 가을 성수기에는 하루 3 ~ 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곳이

다. 군은 성수기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천산 음용온천수 주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관광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도 792호선 차로를 이용해 강천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군은 전망대, 쉼터 등을 갖춰 강천호의 비경과 잘 어울어지는 데크형 도로보길을 조성해 관광객 안전 확보는 물론 강천산의 또 하나의 관광 명물로 만들기 결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사업은 전북도에서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강천산과 온천수를 활용한 동굴형 체험관, 수체 체험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의 관광자원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도로보길이 완공되면 그동안 강천산 관광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주차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줘 전북도가 추진하는 토탈관광 추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주원 문화관광 과장은 "강천산 도로보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성수기 관광객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강천산의 또 다른 관광명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최대한 강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하고 강천산의 최대 관광시기인 단풍철 이전 사업을 마무리 해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강천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촌민박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식품위생 상태 점검 · 소화기 · 화재경보기 작동 등

남원시는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 등 지역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간에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유명 피서지 대신 새로운 대체 여름 휴양지로 떠올라 마을을 찾는 체험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는 12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를 6월~8월 동안 체험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이 19,133명으로 추어마을(6,193명), 노봉마을(5,295명), 덕동마을(3,537명), 달오름마을(1,330명), 원천마을(1,038명) 순으로 파악됐다.

복합대는 인파와 바가지 상흔으로 고생하기 십상인 유명 피서지 대신 시에서 지원하고 마을에서 집중 관리하여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안전한 피서지로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농촌마

을은 활력을 찾고 도시민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인식되어 기대가 크다.

남원시에는 올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우수농가민박 4곳을 포함해 농어촌민박이 30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200여개가 유명 피서지인 지리산 백사골 인근 산내면에 위치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7월~8월 한 달간 12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시작으로 300여개 농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대비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1차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재점검하였고, 체험객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상태 점검, 소화기·화재경보기 작동 및 비상시 대피훈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또한, 시는 남원 농촌을 찾는 체험객들이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체험안전보험과 시설물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번 5월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진절·소방안전·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시 농촌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 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취약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각 사업장에 조치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체험시설 점검 등을 통해 남원을 찾는 체험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배 첫 컨테이너 선적작업 실시 · 미국 수출 기념식

원양배 · 황금배 16톤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고창배농조합법인(대표 박형남)은 25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수출을 위한 첫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실시하고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물량은 4천만원 상당의 원양배 · 황금배 16톤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0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로 고창배를 재배하는 농

가들은 약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땅에서 성장하여 모양이 고르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도 얇아 식감이 뛰어나 인기가 높다.

2003년부터 수출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 괌 등에 한국 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미국 수입사인 (주)리마글러벨은 "미국에서도 배가 생산되지만 맛과 품질 면에서 고창 배를 따라올 수가 없다"며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서 생산되는 청정한 배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부각되고 풍부한 과즙과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FTA시대에 고창배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과실로 그 입지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가고 있다"며 "배를 비롯해 복분자와 수박, 멜론, 고구마, 고추 등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이 고창이라는 이름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여행작가협회 초청 팸투어

뿌리 치즈마을 · 물안개가 아름다운 옥정호 등 체험

임실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여행작가협회(회장 이종원) 회원 20여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25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1일차는 ▲임실치즈의 뿌리 치즈마을 ▲왕의 기운이 서려있는 상이암 ▲각종 재난상황을 체험하는 119안전체험관 ▲블루베리 농촌체험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과 대화 ▲필봉문화촌 '필봉 굿 보러 가세'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2일차는 ▲물안개가 아름다운 옥정호 ▲치즈축제의 주 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체험 및 관광 ▲임실전통시장 투어 및 식사 ▲관촌 사선대 방문 등 주요관광 자원을 둘러보고 관광, 맛 집 투어, 농촌체험 등을 병행했다.

(사)한국여행작가협회는 각종 매체에 여행기사를 기고하거나 여행 서적을 저술한 전문 여행작가들로 구성된 군 관광 자원 홍보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종원 회장은 "임실여행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아이템을 발굴하는 가치 있는 팸투어"라며, "성공적인 임실N치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팸투어에 참가한 여행 작가들의 임실여행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군의 대표상품인 치즈체험과 연계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한국여행작가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즈의 원조고장 임실에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2016 제2회 임실N치즈축제'는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 치즈콘테스트,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낙농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오감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

순창군이 갈색날개매미충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4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긴급 개최해 방제 약제를 선정하고 8월 17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방제기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2차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공동방제 등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역살포기를 이용하여 도로변 가로수 등의 방제에 집중했고 24일부터는 방제약제를 마을 단위로 공급하고 있다.

또 마을별로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군이 올해 5월 10일 약충 발생시 140ha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했으나 산림 및 미방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갈색날개매미충이 최근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개별 방제보다는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이 새 가지에 산란하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가 중요한 만큼 꼭 마을별로 공동방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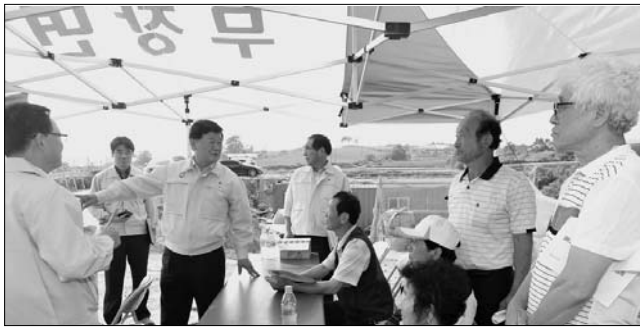
임실군 쌍암지구 선진지 견학 실시

임실군 쌍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주철)와 주민 등 20여명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순창 방축마을과 담양 무월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실시한 벤치마킹은 순창 방축마을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강을 듣고 담양 무월마을을 방문해 경관조성 사례 등을 견학했다.

황주철 추진위원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마을의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긴급한 집수리, 안전시설 확충, 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이며, 쌍암지구 새뜰마을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정비, 상습침수구역정비, 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등을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가뭄대비 현장방문

지역 내 농가애로사항 청취 등

박우정 고창군수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군수는 25일 무장면 옥산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장과 대산면 산정리에 폭염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인삼밭 등을 찾아 점검하고 농업용수 공급 등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현재 저수율이 평균 45%정도로 당장의 영농급수 공급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저수율이 악화될 소형저수지와 소형관정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지역에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밭작물의 경우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가뭄이 지속 될 경우 광범위한 농작물 고사와 수확량 감소 등 가뭄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분야별 법정 대응계획 보다 한걸음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현재 고갈된 소형관정과 소형저수지 밖에 수원이 없어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중형관정 설치 등을 위한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저수지, 관정, 양수장, 양수정비 등을 점검하여 농업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어려울수록 군민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고난을 이겨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23일부터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서비스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폭염피해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관리사 및 복지도우미 등이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문 및 전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받아 정밀조사 후 지원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57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여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폭염대비물품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쌍치면 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

순창군 쌍치면 자율방재단(단장 양병원)은 지난 22일 40여명의 방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쌍치면 자율방재단 한마음 체육대회행사 및 행복하세 환경정화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단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보령도장에서 간단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금정체육공원 잔디계기, 제조작업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양병원 단장은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이 앞장서 지역을 기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치면 자율방재단은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여 차례 각종 재난 재해 예방활동과 클린순창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순창=이양원 기자